



### 3. 성서독서

#### 마태오(마태) 복음 19:23-3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백 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4. 독서 후 송가

#### 성모 마리아송가

1.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2.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3.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4.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5. 주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6. 권세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7.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8.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9.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5. 사도신경

+ 나는 믿나이다.

◎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 6. 주의 기도

+ 주께서 이제 여기에

◎ 우리와 함께 하소서.

+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시어
-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  
고
-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 7. 오늘의 본기도

+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느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항상 넘  
치게 들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돌보시어, 우리가 감히 구하지 못할  
은총을 내려 주소서.

### 8. 평화를 위한 기도

+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 아멘

### 9. 보호를 구하는 기도

+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  
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  
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  
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  
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 아멘

+ 주님을 찬미합시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별세한 신자의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평안히  
쉬게 하소서.

● 아멘

## 아주 작은 어린양 한 마리

류형선 사 신원정 곡

(원제 : 그의 나라 온 땅에)

아주 작은 어린양 한 마리 - 애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 녀  
녀히 받으시는 하나님 -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 거 도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  
일꾼들이 쓰대삼은 버린들로 - 머릿들을 삼으시는  
하나님 - 가장 낮은 이들을 - 하늘 높이 올려서 - 하늘  
아래 모든 견세 부끄럽게 하시네 -  
이토록 - 놀라운 - 그의 나라 - 온 땅에 -  
이토록 - 아름다운 - 그의 나라 - 온 땅에 -

Copyright (C) 류형선 . Adm. By KOMCA. Used by Permission.

### 10. 끝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  
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  
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  
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  
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대로  
채워 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후  
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  
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  
소서.

● 아멘

## 혁명기도원

: 예수를 따라 혁명을 기도하는 사람들

혁명기도원은 2011년 4월 30일 노동절 전야제에서 첫 모임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투쟁현장 여가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의 첫 참여자들은 대부분 당시 민중신학자 안병무의 <갈릴래아의 예수>를 읽던 세미나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안병무가 이해한 대로 예수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정치적 주체가 드러나는 현장 한가운데서 예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모임을 구상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노동절 전야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고대의 찬송시들과, 예수의 말씀들과, 예수에 대한 교회의 증언들을 읽었습니다. 그 날 이후 저희는 노동절 당일 거리행진 대열 뒤에서, 부평의 쿨트콜텍 공장에서, 반값등록금 집회 대열 근처에서, 용역폭력의 현장이었던 명동 마리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해직된 현대차 하청노동자의 천막 앞에서, 성탄절의 명동 거리에서, 강제퇴거의 상처가 남은 북아현동 곱창집 앞에서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성경 구절들과 현장 사이의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현장 기도모임을 위한 성경구절을 직접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혁명기도원의 모임에 사용되는 성경구절은 성공회가 사용하는 2년 주기로 된 “성무일과 성서정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시들은 모두 투쟁현장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고,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예수가 그들을 찾아가 고통을 나누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마치 성서의 의미를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기도회에 동참한 이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 - 우리 모임 안에는 무신론,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 성공회, 천주교 등 다양한 전통으로부터 온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 과 상

관없이, 성서에 적힌 이야기와 현장의 이야기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외, 그리고 그로 인한 투쟁의 현장은 바로 우리를 성서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였고 성서는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예수를 통하여 “祈禱”하는 것과 혁명을 “企圖”하는 것이 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혁명기도원은 앞으로도 현장 기도모임을 통해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혁명적 면모를 새로 발견해 내고, 현장에 싸울 힘을 불어넣는 활동을 계속 해 나가려 합니다.

[http://blog.jinbo.net/rev\\_pr](http://blog.jinbo.net/rev_pr)

